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안성아¹, 정은영², 공정현^{3*}
^{1,3}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²청암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Seong-Ah Ahn¹, Eun-Yeong Jeong², Jeong-Hyeon Kong^{3*}
^{1,3}Dep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²Dep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약 본 논문은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전남지역 1개, 경남지역 1개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을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대인관계 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7.0%이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how these variables affect clinical practice stress. Participants consisted of 164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third and fourth years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t two nursing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sangnam and Jeonnam, and agreed to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April 1 to April 30, 202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Win statistics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t-test, ANOVA, scheffe's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found that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stress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perceived stress,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27.0%.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o reduce perceived stress and improve self-esteem in order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 Perceived stress, Self-esteem, Str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 임상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간호지식을 실무 현장에서 경험해 보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 간호

교육기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1].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기준에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간을 졸업 전까지 1,00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간호 임상실습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대학생은 많은 스

*Corresponding Author : Jeong-Hyeon Kong(JinJu Health College)

Tel: +82-55-740-1958 email: wjdgus0063@hanmail.net

Received June 20, 2021

Revised July 02, 2021

Accepted July 06, 2021

트레스를 호소[1]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대인관계, 과제물, 전문지식과 기술, 실습교육환경, 실습업무 부담, 공부, 일 등[1]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우울, 불안, 피로 등 신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2-3]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여러 번 반복이 되어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과 전공과목의 수나 학습량, 국가고시 준비 부담감 등으로 인해 학업문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자살생각, 수면장애 등과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4-6]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전인적 간호를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 및 간호전문직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7]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간의 심리적 적응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8].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낮고[9-10],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전문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적 상황을 견디는 데 중요한 내적 요인이라 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12](이애경, 2015), 전공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눈치[13], 의사소통능력, 스트레스 대처[14] 등이 있으며,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스트레

스와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S시와 경남도 J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을 편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에 수집된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명시하였고, 작성한

설문지는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과 설문 작성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 도중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효과크기는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 예측변수 9개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4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7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최종 164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등[15]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Park 등[5]이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사용하였다. 도구는 부정적 지각 5문항, 긍정적 지각 5문항 등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전혀 없었다' 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4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등[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부정적 지각 .77, 긍정적 지각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지각 .85, 긍정적 지각 .78 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6]가 개발하고 Jeon[17]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5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86이었다.

2.3.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 & Sriavastava[18]가 개발하고 Kim & Lee[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Lee[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88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계수는 Pe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총 164명 가운데 여자가 132명(80.5%), 4학년 84명(51.2%), 종교 없는 경우가 132명(80.5%),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8명(47.6%), 대인관계는 '좋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97명(59.1%),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6명(64.6%), 학업성적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1명(73.8%)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Charicterist	Categories	n(%)
Gender	Male	31(18.9)
	Female	132(80.5)
Grade	3rd	80(48.8)
	4rd	84(51.2)
Religion	Yes	32(19.5)
	No	132(80.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68(41.5)
	Good	78(47.6)
	Not Satisfaction	18(1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7(59.1)
	Usually	55(33.5)
	Not Good	12(7.3)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06(64.6)
	Usually	53(32.3)
	Not heathy	5(3.0)
Academic Achievement	Higher	24(14.6)
	Middle	121(73.8)
	Lower	19(11.6)

3.2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총점 평균은 2.90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총점 평균은 3.86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77점이었다[Table 2].

[Table 2]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stress level (N=164)

[표 2]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N=164)

Variables	Range	Min	Max	M±SD
Perceived stress	0-5	1.60	5.00	2.90(±.47)
Self Esteem	1-4	2.50	4.00	2.86(±.55)
Clinical practice stress	1-5	1.25	3.88	2.77(±.49)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학년($t=3.22, p=.002$) 전공 만족도($F=4.21, p=.016$), 대인관계($F=9.86,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6.12, p=.00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전공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가 나쁠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즉, 3학년이 4학년 보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학년($t=-2.33, p=.021$), 전공 만족도($F=3.22, p=.043$), 대인관계($F=15.11, p<.001$), 주관적 건강 상태($F=6.66, p=.002$)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즉, 3학년이 4학년보다, 대인관계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F=20.33, p<.001$), 대인관계($F=27.1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전공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다고 응

[Table 3]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Clinical practice stress	
		±SD	t or F (p)	±SD	t or F (p)	±SD	t or F (p)
Gender	Male	2.76±.48	-1.91 (.058)	2.97±.60	1.16 (.246)	2.71±.57	-0.78 (.436)
	Female	2.94±.46		2.84±.53		2.79±.47	
Grade	3rd	3.02±.49	3.22 (.002)	2.76±.53	-2.33 (.021)	2.83±.42	1.34 (.182)
	4th	2.79±.42		2.96±.55		2.73±.55	
Religion	Yes	2.84±.56	-0.90 (.368)	2.96±.60	1.09 (.277)	2.79±.54	0.19 (.853)
	No	2.92±.44		2.84±.53		2.77±.48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61±.52 ^a	4.21 (.016) a<b,a<c	3.06±.59	3.22 (.043)	2.15±.62 ^a	20.33 (.000) a<b,a<c
	Moderate	2.95±.40 ^b		2.76±.53		2.84±.42 ^b	
	Unsatisfied	2.92±.50 ^c		2.93±.53		2.87±.42 ^c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53±.48 ^a	9.86 (.000) a<b,b>c	3.28±.47 ^a	15.12 (.000) a>b,b<c	1.90±.35 ^a	27.13 (.000) a<b,a<c
	Moderate	3.09±.43 ^b		2.58±.50 ^b		2.84±.44 ^b	
	Not Good	2.84±.45 ^c		2.98±.51 ^c		2.85±.43 ^c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2.84±.48 ^a	6.12 (.003) a<c, b<c	2.97±.51 ^a	6.66 (.002) a>b,a>c	2.73±.47	1.37 (.257)
	Moderate	2.97±.41 ^b		2.71±.56 ^b		2.83±.54	
	Bad	3.52±.08 ^c		2.36±.59 ^c		3.03±.37	
Academic Achievement	High	2.83±.37	0.64 (.526)	3.02±.51	1.25 (.289)	2.80±.43	0.09 (.912)
	Middle	2.90±.49		2.85±.54		2.78±.49	
	Low	3.00±.40		2.78±.63		2.74±.60	

답한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고, 대인관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r=-.2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스트레스($r=.30$,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r=-.4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표 4]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N=164)

Variables	Self Esteem	Perceived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Self Esteem	1		
Perceived stress	-.44 (<.001)	1	
clinical practice stress	-.24 (<.001)	.30 (<.001)	1

3.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782-.841 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190-1.279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2.111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고 잔차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184, p=.016$), 지각된 스트레스($\beta=.196, p=.011$), 전공 만족도($\beta=.197, p=.009$), 대인관계($\beta=.295, p<.001$)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7.0%로 나타났다.

[Table 5]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표 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6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99	.433		4.391	<.001
Self Esteem	-.165	.068	-.184	-2.425	.016
Perceived stress	.207	.081	.196	2.563	.011
Major Satisfaction	.147	.055	.197	2.652	.009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9	.057	.295	3.987	<.001

Durbin-Watson 2.111, F=14.714, $p<.000$, $R^2=.27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변수의 상관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90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Park & Byun[20]의 2.83점, Yu[21]의 2.84점과 비슷하였고, Nam 등[22]의 1.94 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Nam 등[22]의 연구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와 Park & Byun[20], Yu[21]의 연구에서는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이 되면 임상 실습을 이수해야 하므로 전공 이론 교과목을 8주 동안 두 배수의 수업이 이루어져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학업문제의 경우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4]. 그러므로 3학년, 4학년 대상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3학년보다 4학년이,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공 만족도와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Yu[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Yu[2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위해 많은 학업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학생들의 대인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7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Kim&Kwon[23]의

2.64점과 비슷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향후 간호사로서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23]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실제 Park[24]의 연구에서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인 ‘인성함양 II’ 교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성함양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3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Jeong&Shin[25]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Oh 등[2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3학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Hwang[27]의 3.15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간호교육 인증평가원에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임상실습을 최소 1,0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모든 간호대학생들은 이 기준에 맞추어 임상실습 시간을 이수하는 필수적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프로그램[28], 웃음프로그램[29]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을 가기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하여 사전에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임상실습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0].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상실습 스

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3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연구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개인 특성에서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이 있으며[32], 이러한 요인들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im 등[33]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3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같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대인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7.0%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효율적인 관리는 간호사 업무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직결되므로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에서는 임상실습 전과 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임상실습 감소를 위한 비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음을 알수가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은 간호대학생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단계에서 차별화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이 필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K. Hyoung , Y-S. Ju and S-I. L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0, No.4, pp.394-404, 2014.
- [2] S-Y. Han and Y-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2, pp.554-561, 2012.
- [3] S-Y. Park, 'Relationships among Stress, Depression, Musculoskeletal Pain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26, No.1, pp.1-19, 2021.
- [4] S-K. Cha and E-M. Lee,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650-658, 2014.
- [5] J-O. Park and Y-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29, No.3, pp.611-629, 2010.
- [6] M-K. Shin, H-R. Yi and J-S. Won,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19-428, 2013.
- [7] S-J. Park and B-J. Park,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1, No.4, pp.313-322, 2013.
- [8] K-S. Choi, 'Self-esteem and Positive Psycholog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5, No.3, pp.205-214, 2007.
- [9] S-H. Lee and S-J. Kim,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6, No.3, pp.453-464, 2012.
- [10] H. Moon, M-J. Chung and J-Y. Kim, 'Mediating Effect on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9, No.3, pp.253-260, 2011.
- [11] H-I. Lee,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18, No.2, pp.109-118, 2010.
- [12] A-K. Lee, H-S. You and I-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154-163, 2015.
- [13] S-H. Kim, J-H. Kim and M-R. Jang,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Lazarus and Folkman's Stress-Coping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9, No.4, pp.437-448, 2019.
- [14] S-J. Shin and M-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 Social science*, Vol.7, No.5, pp.441-455, 2016.
- [15] S. Cohen, T. Kamarck and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4, pp.385-396, 1983.
- [16] M. Rosenberg, 'In: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7] B-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11, pp.109-129, 1974.
- [18] D. Beck and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19] S-L. Kim and J-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 [20] H-J. Park and E-K. Byun, 'Effect of Perceived Stress,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on the Test Anxie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1, pp.194-201, 2021.
- [21] M-O. Yu,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Perceived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2, pp.168-176, 2017.
- [22] J-H. Nam and H-S. Park, 'The Impacts of Perceived Stress and Self-compassion on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1, pp.67-77, 2020.
- [23] Y-H. Kim and Y-C. Kwon,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2, pp.215-224, 2018.
- [24] M-R. Park,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3, pp.77-95, 2019.
- [25] M-H. Jeong and M-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170-177, 2006.
- [26] E-J. Oh, G-J. Jo and Y-K. Jung, 'Nursing Students' Academic Stress, Self-este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6, pp.2583-2595, 2020.
- [27] H-M. Hwang, 'Relationship among Empathic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2, No.1, pp.1-10, 2017.
- [28] Y-R. Yeom and K-B. Choi, 'The Effect of Mindfulness Mediation Programs on Nursi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104-113, 2013.
- [29] K-H. Jung and S-Y. Park, 'The Effect of Laughter Program on the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1, pp.163-172, 2012.
- [30] J-S. Yoo, S-J. Chang and E-K. Choi, 'Development of a Stress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 No.3, pp.410-419, 2008.
- [31] E-A. Kim,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9, No.3, pp.91-99, 2018.
- [32] H-J. Choi, 'The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Research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5, pp.355-367, 2021.
- [33] S-Y. Kim, S-Y. Lim and H-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1, No.4, pp.59-64, 2015.